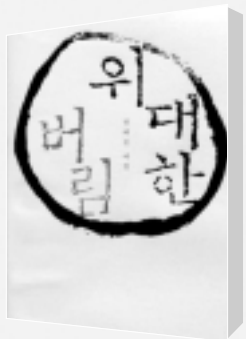


중생의 몸 훌훌 벗고

우주의 큰 뜻 품으시나...

부처님 주요 생애 그린 '팔상도' 의미 법문으로 엮어



위대한 버림

이준엽 엮음 | 빨간우체통 펴냄 | 1만 1000원

달랐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는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 범부 중생의 출생은 업에 따라 끌려왔다가 끌려가기에 업계고신(業繫苦身)이라 한다. 부처님의 출생은 뜻하는 대로 태어난다고 하여 수의수생신(隨意受生身)이라 한다. 아무생각 없이 태어난 것과 뭔가 뜻가지고 태어난 차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차이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중생은 업생(業生)이라 하고 부처님은 원생(願生)이라 한다.

부처님의 삶. 바로 원력의 삶이다. 마야 왕비의 꿈에 흰 코끼리로 예시를 하고(도솔래의상)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입곱 걸음을 옮기며 "천상천하유아독존"을 외친 것(비발갈

부처님은 왜 이 번뇌 덩어리인 사바세계로 오셨을까? 그것도 당시 인도사회에서 가장 귀한 신분이었던 바라문이 아닌 왕족으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생활을 했다. 결혼하여 아들도 낳지 않았는가? 부처님의 생애를 접하면서 누구나 갖게 되는 의문이다. 부처님의 탄생과 생활이 '인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솔천에서 사바세계를 구제하기 위한 원력으로 오셨다면 뭔가 좀

생상이 바로 원생을 강하게 강조하는 대목이다.

동서남북 네 문을 나가 인간 고통의 전나라한 현장을 목격하는 것(사문유관상)이나 마침내 성을 넘어 즐기는 대목(유성출가상), 설산에서 많은 스승들을 찾아 수행하다가 결국 홀로 보리수 나무아래 앉아 선정에 드는 장면(설산수도상), 선정에 들어 유혹하고 공격하는 온갖 마구니들을 물리치고 '연기'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의 큰 진리를 깨치는 순간(수하항마상)까지 부처님의 일생은 범부중생과는 분명 다른 노정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이 범부 중생의 몸으로 왔다가 그 몸을 버리고 위대한 진리를 남겨 놓고 가신 것은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분명하게 내재된 부처의 씨앗, 불성을 자각하라는 가르침이다. 온 몸으로 일생을 함께하며 가르치신 위대한 교육인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뒤 다섯 비구를 찾아가 첫 설법(녹원전법상)을 하면서부터 49년 동안 가르침을 베푸시다가 마침내 육신을 버리고 열반에 드시는 모습(쌍림열반상)에서도 우리는 위대한 스승의 간절한

가르침을 듣고 읽고 느끼게 된다.

부처님의 생애 중 중요한 대목들을 여덟 가지의 그림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을 팔상도(八相圖)라 한다. 이 팔상도는 상징성과 사실성을 함께 갖지만 부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데 더 없이 좋은 자료다.

2006년 가을 광주 빛고을 아카데미가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를 주제로 종범 월은 지선 지광 수진 통광 성열 원담 스님 등 여덟 분의 스님들이 팔상도의 상징성과 의미를 풀어 대담한 호응을 얻었다.

빛고을 아카데미 운영위원장 이준엽(前 현 대불교 취재부장)가 그 때의 법문들을 생생하게 풀어낸 뒤 다시 정리하여 <위대한 버림>이라는 이름으로 묶었다.

이준엽 기자
mian1@hanmail.net



당신처럼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 붓다, 그도 인간이었다



사람의 아들 붓다

디팩 초프라 지음 | 전우기 옮김 푸르메 펴냄 | 1만원

"붓다는 당신이 나처럼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간이었지만 깨달음을 얻은 후 무사(無死)의 대열에 올라갔다. 기적은 그가 그곳에 이르는 동안 당신 것이나 내 것처럼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인간의 마음을 따라갔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뽑히기도 한 베스트셀러 작가 디팩 초프라는 새 장편 소설 <사람의 아들 붓다>를 집필한 뒤 붓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2천 5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 그는 젊은 시절 깨달음을 얻기 위해 왕자라는 신분과 가족마저 버린 채 구도의 길에 올랐다. 그리고 서른다섯의 나이에 깨달음을 얻는다. 이 소설은 그의 성장 과정에서 그가 깨달음을 얻기까지 전 생애를 추적하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시타르타의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조명한다.

소설이 그려내는 시타르타의 삶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붓다의 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저자는 악마마라와 시타르타가 사랑한 가공의 여인을 만들어 인간 시타르타의 고뇌를 더욱 실감나게 형상화한다. 소설만이 갖는 묘미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세상 모든것이 '아름다운 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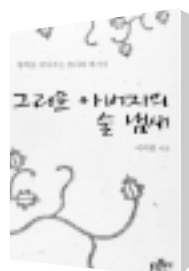
<살구나무경>
원담스님 지음
개미 펴냄 | 7000원

시를 쓰는 비구니 스님의 눈에 세상의 사물들과 현상들이 경전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었다. 그리하여 한 권의 시집이 됐으니 그 시집 역시 아름다운 경전이다. 경남 의령 유향사에서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고 있는 원담 스님의 시작(詩作)은 세상이라는 경전을 읽는 송고한 자세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 시집으로 상재한 <살구나무경>이 그 증거물이다.

1부에서 4부까지로 나누어진 작품들의 테마는 살구나무경, 중생경, 마음경, 산중경이다. 중생으로서의 고통과 수행자로서의 고뇌 등이 깊은 사색과 통찰의 '힘'으로 풀어져 나와 하나의 경전을 이룬 것이다.

이준엽 기자

'아버지 품' 처럼 따뜻한 부처님의 말씀



그리운 아버지의 솔넝새 | 이미령 지음 | 불광 펴냄 | 7000원

반가운 책이 나왔다.

팔만대장경을 우리글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이미령(사진) 동국대학교원외의 <그리운 아버지의 솔넝새>다. 제목만 언뜻 보면 불교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지 모르지만 책 곳곳에는 분명 부처님 말씀이 녹아 흐른다. 그래서일까.

이 책에는 '행복을 찾아주는 붓다의 메시지'라는 부제가 친절히 붙여져 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부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들과 자연스럽게 연결해 풀어냈다는 것이다.

가령 '그리운 아버지의 솔 넝새'라는 글에서

저자는 "술에 취한 아버지는 언제나 어두운 골목길을 비틀비틀 걸어 올라오며 가족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흥얼거린 가장이었다"며 평소 자주 술을 즐기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짐작 있게 그려낸다.

이어 저자는 "성불하신 뒤에 고향을 찾은 부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애타 하는 아소다리를 따로 만나 그녀의 마음을 달래준 '지아비'였고, 자식인 라훌라를 출가시킨 뒤 사람들의 정신적 스승으로 우뚝 서도록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덤덤하게 때로는 자비롭게 가르침을 베푸신 '아버지'였다.

삶이 버거워 술에 취해 주장을 부러도 '우리 아버지'라며 따뜻하게 안아주고 받아주는 내 편이 있어야 술마실 기분이 나지 않겠느냐"며 부처님의 인간적인 면모와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을 연결시켜 소개한다.

무엇보다 글이 간결해 책장이 술술 넘어간



다는 것도 이 책이 빨리 다가오는 또 하나의 이유다.

원래 이 책의 글들은 <현대불교신문>에서 2년 여간 연재하며 독자들과의 호응을 받았던 것들이다. 이것을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성공을 돕는 붓다의 처세술' '진리의 바다에서 삶을 충전하다' 등 네 주제로 나눠 편집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성공을 돕는 붓다의 처세술' '진리의 바다에서 삶을 충전하다' 등 네 주제로 나눠 편집했다.

"이 책은 불교경전을 접하지 못하는 대중들에게 주옥같은 부처님 말씀 한마디씩을 들려주며 거기에 적절한 해석의 턱담까지를 곁들여 주고 있어 큰 감동과 여운이 남는다"는 소설가 한승원씨의 추천사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책을 읽다보면 편편마디의 글들이 마음속에 깊이 큰 울림으로 박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비람 속 이야기	동학사 편집실	운주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미움의 숲
3	염불수행일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4	무문관에서 꽃이 피다	최민희 편저	운주사
5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6	하루 108배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이름미디어
7	오대산 노스님의 그 다음 이야기	과경	불광
8	애들이 절에 가자	홍주연	조계종출판사
9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10	꽃과 별	청안	김영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불법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澗 지음

대한불교조계종 제 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이시며 동국대학교 불교 역경원장이시고 (生佛)이신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 모두가(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와 같다고(찬탄 하시었다)

신국판 | 319쪽 | 값10,000원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폐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사암오행침구술 대특강

덕운스님의 비방공개 (3개월완성)

덕운스님은 사암오행침구술 및 승가에 전해오는 침구술을 30여년 연구하신 큰스님으로서 불자들의 건강을 위한 활인공덕의 일환으로 최초로 비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 강 사 : 사암도인의 침구술을 계승하신 덕운스님
- ▣ 일 시 : 2007. 6. 1 - 8. 30 (3개월)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 오후5시)
- ▣ 보시금 : 일반인 - 월100만원
신도증소지자 - 월 50만원
승려증소지자 - 월 30만원
- ▣ 3개월 수료후 수료증 발급
- ▣ 문 의 : ☎ 02)3487-2311~3
FAX 02)588-1056
H.P 011-335-9351(담당자)

※ 참고: 동양의학방송국 사이트 무료강좌(토요특강)참조 (www.dytv.co.kr)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67-3
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종 활인정사